



# 전주매일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 전북, 최고의 기업하기 좋은 도시 '인정'

지난 4월 25일 전북특별자치도가 '2024 국가대표 브랜드 대상'에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선정된 데 이어, 김관영 도지사가 최근(10월 25일) '2024 한국경제 최고의 리더'로 인정받으며 민선8기의 친기업 정책이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 이번 성과는 전북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경제 환경을 구축한 결과로 평가된다.

### ▲전북에 와서 성공한 기업을 위해 전성기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가 이끄는 전북도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민선8기 전북도정의 최대 핵심과제인 기업유치가 지난해 투자금액 10조원을 넘어서는 등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28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2022년 7월부터 최근까지 민선8기 들어 전북특별자치도가 체결한 투자협약은 협약기업 136개사, 투자금액 12조5,084억원, 고용인원 1만3,966명(예정인원 포함)에 이른다.

주목할 만한 점은 투자기업 대부분이 이차전지 기업이라는 점이다. LG화학과 LS M&M, LS-L&F 배터리 솔루션 등 이차전지 관련 24개 기업에서 9조1,508억원의 투자협약을 끌어냈다. 이러한 추세라면 10년 뒤 '이차전지' 하면 전북이 자연스럽게 연상될 것으로 기대되는 대목이다.

특히, 취임 당시 내걸었던 '계열사 포함 대기업 5개 유치' 공약은 (썬)산, 삼성전자, LG화학, LS M&M, LS-

### 민선8기 친기업 정책 가시적 성과 돋보여

### 도, 기업·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지속가능 경제 환경 구축

### 김관영 지사 "기업 활동 지원 아끼지 않을 것"

L&F 배터리 솔루션, 한국미래소재 등 총 6개사 유치를 통해 조기 달성했다.

변화의 바람은 기업 유치를 넘어 전북에 소재한 기업들에도 미치고 있다.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가 본격화되면서 도내 기존 기업들도 경쟁력을 높이고 있다. 이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삼성전자 출신의 멘토들의

컨설팅 아래 생산자동화 등 스마트 팩토리를 구축해 제조업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여기에 잠재력을 갖춘 기업과 창업자를 발굴, 투자하는 문화도 생기고 있다. 도는 KDB산업은행과 함께 1,406억원 규모의 '전북-KDB산업은행 지역혁신 성장펀드'를 조성하기로 한 데 이어 2023년까지 지역 벤처를 위한 펀드를 1조 원 규모로 구축하기로 했다. 이른바 산토끼와 집토끼를 두루 만족시키는 기업친화적 환경이 조성되고 있는 셈이다.

### ▲기업에 문턱 낮은 찾아가는 기업친화정책

변화의 바람은 △1기업 1공무원 전담제 △전북형 삼성 스마트 혁신 프로젝트 △특구·투자진흥지구 지정 등을 통한 세제감면 및 규제완화 △환경단속 사전예고제 △기업수요 전문인력 양성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기업맞춤형 외국인 근로자 비자사업 등 친기업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던 전북자치도의 노력이 중심에 있었다.

전북의 대표 정책인 '1기업 1공무원 전담제'는 기업별 전담 공무원이 애로사항을 즉시 해결하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는 제도로, 2024년 4월 기준으로 전라북도 전역의 2,797개 기업이 혜택을 보고 있다. 또한, 규제 완화와 인허가 기간 단축, 세제 혜택 등 기업 친화적 조치를 통해

기업의 만족도를 높이고 투자유치를 확대해 왔다.

비단 1기업 1공무원 전담제에 그치지 않고 노사 간 타협과 양보를 최우선의 가치로 삼고자 하는 '노사 평화지대' 또한 기업유치에 큰 힘을 보태고 있다.

전북자치도는 올 들어 민주노동, 한국노동 등 양대 노총과 함께 지역이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고자 한다. 전북자치도, 시군(전주시·군산시·김제시·완주군), 기업(현대차·타타대우·협력사), 산별노조(금속노조·금속노련), 전문기관(JLAT·전북연구원·전북TP) 등 16개 기관 및 단체가 참여해 지난 4월 상용차산업노사정 상생 선언을 끌어냈다.

### ▲대한민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동력 '새만금'

전북에서도 새만금은 투자진흥지구 지정(2023년 8월),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2023년 7월) 등 전북에서도 기업인들의 발길이 이어지는, 이른바 기회의 땅으로 부상했다.

새만금 투자진흥지구는 매립을 마친 새만금 산업단지 1·2·5·6 공구를 대상으로, 지정면적은 여의도 면적의 2.8배인 8.1km에 해당한다. 국내의 투자 활성화를 위한 일종의 경제특구로, 세제감면의 인센티브를 제공해 더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다.

구체적으로 새만금 투자진흥지구

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은 법인·소득세를 3년간 면제 받고 이후 2년간은 절반만 내면 된다.

여기에 이차전지 특화단지 선정에 따라 민간투자가 적기에 이뤄질 수 있도록 인허가 신속처리, 길러규제 완화, 세제 및 예산 지원, 용역을 완

화, 전력 및 용수 등 기반시설을 포함한 맞춤형 정부 지원이 이뤄진다. 특히, 새만금 내부를 가로지르는 동서·남북 십자형(+) 간선도로(43.6km) 전 구간을 개통하는 등 새만금의 미래 발전 가능성을 두 눈으로 직접 목도할 수 있다는 점 또한 기업의 투자를 촉진하고 있다.

새만금 잠바리 파행 이후 '적정성 검토 용역'으로 멈춰있던 새만금 주요 SOC 사업이 재개된 만큼, 전북자치도는 새만금 지역간 연결도로 건설사업을 비롯해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사업, 새만금항 인입철도 기본계획 수립 등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등 국내의 기업에 최고의 SOC 환경을 제공하겠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이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자리 잡으며 도민과 기업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들이 전북에서 성장과 자긍심을 느끼며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 미래학교 우수사례 '숏폼'으로 알린다

전북교육청, 공모전 개최

내달 15일까지 신청접수

주제는 운영 사례 등 네가지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서거석)은 2024 전북미래학교 숏폼 공모전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 공모전은 스마트폰 등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를 활용해 전북미래학교의 비전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목적이다.

공모 주제는 △전북미래학교에서 배우는 나 △전북미래학교! 꿈을 향한 도전 △함께 만들어가는 전북미래학교 △전북미래학교 운영 사례 등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생 및 교직원은 오는 11월 15일까지 1분 이내의 숏폼 영상을 제작해 공모신청서와 함께 이메일(kyunjk@jedu.kr)로 제출하면 된다.

파일형식은 mp4 또는 avi, 해상도는 1280x720px 이상이어야 한다.

전북교육청은 심사를 통해 본선작 6편, 장려작 20편을 선정할 예정이다. 본선작 6편은 12월 6일 전북미래학교 성과보고회에서 현장심사를 거쳐 최종 순위가 결정된다.

오선화 미래교육과장은 "학생과 교직원이 숏폼을 제작하는 과정을 통해 미래교육의 비전과 가치를 공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변화되는 전북미래학교 실현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은성 기자



28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에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한 참석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전북특별자치도청 제공)

## 인공지능 활용 제조업 미래 밝힌다

전북자치도, 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2개 사업 선정

농기계·푸드테크 분야 미래 제조업 환경 초석 마련

김관영 도지사 "인공지능 기술 융합 산업혁신 앞장"

전북특별자치도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공모사업에 농기계와 푸드테크 등 2개 분야가 선정돼 국비 90억원을 확보했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는 산업부가 인구구조 변화와 생산성 저하 등 제조업의 난제를 해결하고 미래 산업의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획된 신(新)산업정책이다.

인공지능(AI) 자율제조는 로봇과 장비 등을 제조공정에 결합해 생산의 고도화와 자율화를 구현하는 미래 제조 환경을 의미한다.

공모에 선정된 첫 번째 사업은 '농기계 다품종 유연생산 인공지능(AI) 자율제조 기술개발' 사업으로 도와 익산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전북기술실용화본부와 (주)티와이엠 등이 함께 추진한다.

특히, 트랙터 제조 공정에 인공지능(AI) 기반 로봇 기술을 결합해 글로벌 시장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할 수 있는 농기계 양산 체계를 구축하고 세계 시장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두 번째 사업인 다품종 소량 유연 포장 공정의 생산성 향상 위한 자동화 운영시스템 기술개발 사업은 한국식품연구원,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캄틱종합기술원, (주)팜조아 등이 참여한다.

최근 높은 성장세를 보이는 가정 내 간편식(HMR) 공정에 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다품종 소량생산에 적합한 자율제조공정을 운영·실증 하는 것을 목표로 하며, 이를 통해 도내 푸드테크 기업의 제조역량을 한층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러한 성과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바이오,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분야의 혁신을 가속화하는 중요한 이

정표로,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산업부는 28일 서울 용산구 소재 그랜드 하얏트에서 '인공지능(AI) 자율제조 선도프로젝트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번 협약식은 공모사업에 선정된 주요 지자체와 참여기관 및 기업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전북자치도는 이날 광역자치단체를 대표해 김관영 도지사가 참석, 축사를 전했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이번 협약식은 제조업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뜻깊은 자리"라며, "미래 산업의 핵심 기술은 인공지능(AI)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도에서도 인공지능(AI) 기술 융합을 통한 산업혁신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개인방역수칙 생활화  
감염병 예방 지름길

### 축! 전주매일 창간

## 전주페이퍼가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새롭게 도약합니다.

55년동안 신문출판용지 대표기업으로 자리매김해 온 전주페이퍼가 혁신적인 변화를 거듭해 신문, 책, 포장 박스의 재료가 되는 다양한 종이를 생산하는 종합제지 대표기업으로 나아갑니다.

